

'1000만 영화 흥수'...최다 관객 새 역사 쓴다

극한직업·어벤져스4 이어 3번째 990만 기생충, 이달말 달성 유력 나랏말싸미 등도 '관객몰이' 합세

영화 '알라딘'이 14일 누적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한국영화 '기생충'과 함께 '쌍끌이 1000만'의 흥행세를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올해 극장가가 역대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지, 또 다른 1000만 관객 영화가 등장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동일기준)에 따르면 1992년 원작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디즈니 영화 '알라딘'이 14일

전국 930여개 스크린에서 2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 관객 1015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알라딘'은 5월23일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해 차트 역주행하며 개봉 53일 만에 역대 25번째로 '1000만 클럽'에 가입했다. 역대 외화로는 7번째이며, 올해 '극한직업'과 '어벤져스:엔드게임' 이후 세 번째 흥행 성적이다.

뒤이어 한국영화 '기생충'의 '1000만 클럽' 가입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기생충'은 14일 현재까지 누적 990만여 명을 넘어섰다. 1000만 관객까지는 이제 불과 10만여 명 모자란 상황. 평일 평균 1만~1만5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보여 이달 하순경 새로운 기록을 쓸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17일 개봉하는 또 다른 디즈니 실사영화 '라이온 킹'의 흥행 성적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알라딘'과 '기생충'의 쌍끌이 1000만 행진은 올해 상반기 극장 관객이 역대 가장 많았던 열기를 잇는 것이다. 앞서 2014년 말 개봉한 '국제시장'과 '인터스텔라'가 이듬해 초 나란히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015년 여름에는 '베테랑'과 '암살'이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최초로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실미도'는 그 직후 '태극기 휘날리며'의 추격 속에 '쌍끌이 흥행'을 이끌었다. 모두 나란히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며 경쟁해 해당 시기 극장가의 '관객 파이'를 키우는 데 큰 역할

을 했다. 역대 처음으로 상반기 관객이 1억532만 명으로 1억 명을 넘어선 올해는 앞선 상황에 비해 더욱 폭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알라딘', '기생충'과 함께 올해 2월 '극한직업'과 5월 '어벤져스:엔드 게임'의 1000만 관객 등 대규모 흥행작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연간 역대 최다 관객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현재 흥행 중인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에 이어 '라이온 킹', '겨울왕국2' 등 외화와 '나랏말싸미' '봉오동 전투' 등 한국영화 기대작의 잇단 개봉도 이 같은 기대를 더욱 증폭시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그건 법일뿐”...유승준을 용서하지 않은 민심

비자 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판결에도 법조계 “수감하기 어려운 판결” 반론 입국금지 청원 등 대중들 반응도 싸늘



유승준

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수감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시각이 제기됐고,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은 입국이 금지된 2002년 못지않게 들끓고 있다.

앞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2015년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002년 당시 법무부의 한국 입국 금지 결정만을 근거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2년 1월31일 유승준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당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의무를 벗어난 그의 입국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다음 날 입국을 시도하다 발길을 되돌렸다. 따라서 법무부의 조치 자체가 이미 행정처분으로써 유효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중의 반응은 더욱 싸늘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 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는 제목의 글은 14일 오후 현재 16만7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른 글 역시 모두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이날 “비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며 차차 해결해나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확정 판결 후 비자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사이 '흠뻑쇼'서 2년 만의 신곡 깜짝 공개

9집 타이틀곡 '셀럽' 등 3곡 선공개

가수 사이가 예고도 없이 2년 만의 신곡을 콘서트에서 깜짝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사이는 13일 오후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브랜드콘서트 '흠뻑쇼'에서 정규 9집 타이틀곡 '셀럽'을 비롯해 수록곡 '해피어', '에브리데이' 등 3곡의 신곡을 선보였다. 2017년 5월 발표한 정규 8집 '4x2=8' 이후 2년 2개월 만의 신곡이다.

사이는 당초 이달 초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성절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논란, 앨범 완성도에 대한 신중함 등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터였다. 그럼에도 콘서트를 통해 신곡을 전격 선보인 것은 팬들의 반응을 미리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이날 신곡 공개 소식이 전해진 것도 관객들이 공연 풍경을 SNS에 올리면

서 전해졌다. 신곡 '셀럽'은 전자사운드가 가미된 '사이표댄스곡'이다. '넌 나의 셀럽 셀럽 셀럽 셀럽~'이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가 인상적이다.

14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앨범 발표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이는 조만간 정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새 앨범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곧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가수 겸 연기자 수지가 출연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그는 각 앨범마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 인기 여가수들을 '뮤즈'를 내세웠다. 히트곡 '강남스타일'에는 현아, '젠틀맨'에는 가인, '대디'에는 투애니원 출신의 써얼, 2017년 '뉴 페이스'에는 에이핑크 손나은이 출연했다. 수지는 사이와 함께 '뮤즈'답게 뮤직비디오에서 천연덕스럽게 춤을 추면서 능청스러운 표정도 자유자재로 선보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후속 대처 미흡한 '정글의 법칙'...시청률 반토막

지난달 29일 10.1%서 2주 만에 5.3%로 하락

최근 태극 대왕조개 채취 논란을 빚은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후속 방송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태극 편을 중영해 “책임감 없고 뻔뻔하다”는 시청자 비난을 받고 있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연기자 이열음이 태극 꼬막섬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을 방송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4일 태극 핫차오 마이 국립공원 측이 현지 경찰에 제작진과 이열음을 고발했다. 제작진은 직후 이열음에 관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다 8일에서야 “출연자 이열음 씨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혀 ‘능동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어 5일 내놓은 “현지 규정을 사전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마저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다. 제작진이 3월17일 태극 관광스포츠부에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긴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SBS는 8일 뒤늦게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작 본 방송에는 사과나 해명이 담기지 않았고, 제작진은 후속 특집인 미안마 편을 13일 서둘러 내보내기에 급급했다. 이에 시청자는 SBS의 기존 입장이 “진정성 없는 해명”이란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시청률도 반 토막이 났다. 지난달 29일 10.1%(이하 닐슨코리아)를 기록한 시청률은 논란 후인 6일 8.9%, 13일에 5.3%까지 떨어졌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여성그룹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가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 공을 던지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강지환이 12일 영상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강지환 성폭행 구속됐지만 피해여성들 2차 피해 확산

누리꾼 “왜 경찰에 신고 안했나” 비난

연기자 강지환(조태규·42)이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강지환이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9일 밤 10시5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3일 만이다.

하지만 이를 전후해 피해 여성들은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 10일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4일이 지난 14일 현재 여성들을 향한 도를 넘은 비난성 글이 온라인상 나돌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한 것을 두고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먼저 알리지 못한 행동을 지적했다. 또 이들이 모종의 이득을 위해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게 아니냐는 시선까지 보였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지라시’까지 무차별 유포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지환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덧붙여졌다. 그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기사)댓글을 통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해 너무 미안하다”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언급 없이 피해자들이 일부 누리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그의 발언 이후 더욱 자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몰아세우는 내용이 온라인상 퍼져 나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건재 기자 bong82@donga.com